

특집
제국의 과일

『본초강목(本草綱目)』이 조선 후기 과도(果圖)에 끼친 영향

정희정

I. 머리말

동아시아에서 과일이 그림과 공예의 문양으로 시각화된 역사는 오래되었다. 과일만 그린 경우를 과도(果圖), 채소와 과일을 함께 일컬어 소과도(蔬果圖)라 하여 화조화(花鳥畫)의 한 화문(畵門)으로 분류되었다. 과일을 포함한 화조화 소재들은 형태의 아름다움에서 오는 장식적 목적과 더불어 선사시대부터의 조류와 수목송배사상과 연계되어 인간의 삶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벽사(辟邪)와 길상(吉祥)의 대상으로 여겨져 인생의 소망을 나타내는 상징적 존재로서 기복적인 성격을 질게 띠며 다루어졌다. 동양인들의 전통적 사상에 바탕을 두고 형성된 상징적 의미들은 화조화가 순수 감상용으로 발전된 후에도 계속 이어져 이 분야 작화(作畵)동기의 근간을 이루었다.¹

조선시대 회화에서 과일의 비중은 크지 않지만 개별 과일을 주제로 한 연구,² 조

鄭熙靜
한국미술연구소
책임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이학박사
한국근대미술사
문화사

* 필자의 최근 논저: 「물질문화 연구론 관점에서 본 조선후기의 왕실 연향용 음식기명 연구」, 『미술사논단』 52, 2021. 6; 공저, 『18세기의 방』, 문학동네, 2020.

1 홍선표, 「韓國의 花鳥畵」, 『韓國의 美』 18 (중앙일보, 1985), pp.184-191.

2 포도 그림에 대한 연구로 정현희, 「朝鮮末期 崔爽煥(1808-1883以後)과 葡萄圖 連幅屏風」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양호지, 「조선시대 葡萄圖의 전개와 회화적 특성 비교 연구」 (원광대학교 석

선 후기 화조화 연구, 소과도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³ 특히 조선 후기 소과도 발달에 중국 다색화보, 명말 청완(淸玩) 문화, 도시 문화, 원예 지식과 화훼보(花卉譜)의 영향 등을 규명한 성과를 이루었다.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조선 후기 새롭게 그림의 소재로 이국 과일이 등장한 배경으로 본초서의 삽화⁴, 특히 『본초강목(本草綱目)』의 삽화를 살펴보고 한다. 본초서의 삽화를 그림으로 인식한 것은 당대 장언원(張彦遠, ?~875년경)은 『역대명화기(歷代名畫記)』에서부터 그 역사는 오래되었으며, 『본초강목』의 삽화와 화조화의 관계가 보이기 때문이다. 또 조선 후기 박규수는 화조화와 『본초강목』의 삽화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명나라 이시진(李時珍, 1518~1593)이 집필한 『본초강목』(1596)은 조선 허준(許浚, 1539~1615)의 『동의보감(東醫寶鑑)』(1611)과 함께 17세기 이후 한·중·일 동아시아 전역에서 공유된 의학서로 그 영향력은 막대했다. 두 의학서는 동아시아에서 누적된 한의학 지식을 통합적으로 집대성한 학문적 성과였기 때문에 출간된 직후 다른 나라로 유입되었으며, 천 여 점이 넘는 『본초강목』삽화는 시각화된 지식을 동아시아 전역에 전파시킨 강력한 매개체 역할을 했다고 본다.

한편 과일은 환경에 따라 생산 가능성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과학과 교통신이 발달하기 전인 전근대사회에서 지역적 차이가 매우 큰 물질이다. 그렇기에 이국 과일의 가치와 의미는 오늘날과 다를 수밖에 없다. 조선시대 이국의 과일은 보물과 같이 귀해 외교 선물로 활용되기도 했으며, 의례에서 차등을 두는 매개로도 작동했다. 그러나 이야기나 글로만 전하는 이국의 과일은 용(籠)과 같이 상상의 생물이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 후기 상상의 생물인 이국 과일이 그림으로 그려진 현상을 본초학의 발달과 연관지어 살펴보고자 한다.

사학위논문, 2022); 강영주, 「장수와 복락, 多子の 고상한 염원 : 19세기 전북지역 목포도도 전문화가의 활약」, 『한국민화』17 (2022) 등이 있으며, 수박을 주제로 한 연구로 구혜인, 「조선 후기 회화와 공예에 나타난 수박문」, 『한국학』37:3 (2014)가 있다.

3 고연희, 「韓·中 翎毛花草畫의 政治的 性格」(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유순영, 「명 말기 화훼, 사군자, 蔬果 花보의 시각 이미지 연구」, 『미술사연구』39 (2020); 유순영, 「조선후기 花卉·蔬果圖」, 『美術史學研究』300 (2018).

4 본초학 저서의 그림을 지칭하는 용어로 그림, 도판, 삽도, 삽화 등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책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이라는 의미로 삽화(挿畫)로 통일했다.

II. 과도와 사생(寫生)

1. 과도 화문의 형성

과일이 그림의 소재로 등장한 것은 오래되었으나, 화제로 분류되기 시작한 것은 북송대 곽약허(郭若虛)의 『도화견문지(圖畫見聞志)』(1070)부터로 보인다. 『도화견문지』에서 화문을 인물(人物), 산수(山水), 화조(花鳥), 잡화(雜畫)로 분류하였고, 화조 화문의 하위 분류로 화죽(花竹), 영모(翎毛), 초충(草蟲), 소과(蔬果), 금어(禽魚) 등을 두면서, 본격적으로 과일은 채소와 함께 그림의 소재가 되었다. 과일 그림이 채소와 함께 별도의 화문으로 등극한 것은 『선화화보(宣和畫譜)』(1123)부터이다. 『선화화보』에서는 그림을 도석(道釋), 인물, 궁실(宮室), 번족(番族), 용어(龍魚), 산수, 축수(畜獸), 화조, 묵죽(墨竹), 소과의 10문으로 구분했다. 『도화견문지』에서 화조 화문 안에 포함되던 소과가 화조화의 발달로 인해 독립된 화문으로 분화한 것이다. 그런데 『선화화보』 권20 「소과」를 살펴보면 관련 화가들의 어부(御府) 소장품의 목록에 과일 그림으로 보이는 작품명은 없다. 다만 과도로 추측되는 작품명이 축수 화문에 포함된 오대의 여귀진(厲歸眞)의 만과도(蔓果圖)이다. 만과는 넝쿨 진 과일을 뜻하므로, 수박, 참외, 멜론 등이 그려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과일 그림의 발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은 명대 호정언(胡正言, 1584~1674)의 『십죽재서화보(十竹齋書畫譜)』 「과보(果譜)」일 것이다. 『십죽재서화보』는 1619년에서 시작하여 1633년에 완성된 총 8책 16권의 다색판화첩이다. 「서화책(書畫冊)」·「묵화책(墨華冊)」·「석보(石譜)」·「영모보(翎毛譜)」·「죽보(竹譜)」·「매보(梅譜)」·「난보(蘭譜)」·「과보」로 구성되었다.⁵ 두판채색투인(鉛板彩色套印)이라는 분판분색에 의한 미묘한 색조와 농담의 변화, 그라데이션의 효과까지 있는 섬세하고 아름다운 화면을 구현해 모필 채색보다도 우수하다는 평가받고 있다.⁶ 『십죽재서화보』의 「과보」 화보 제작에는 고우(高友)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⁷ 복숭아, 금귤,

5 이혁진, 「明末清初期 彩色 四君子 · 花鳥 畫譜 研究: 十竹齋書畫譜, 十竹齋箋譜, 芥子園畫傳을 중심으로」(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pp.42-43. 본 연구에서는 초간본으로 밝혀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도서관 소장본을 참고했다.

6 고바야시 히로미쓰 지음, 김명선 옮김, 『중국의 전통판화』(시공사, 2002), p.125.

7 이혁진, 위의 논문, p.58.

불수감, 앵두, 연밥과 마름, 포도, 능금, 감귤과 감, 연근, 비파, 석류, 살구, 여지, 밤, 향연, 여주, 마름이 제화시와 함께 20장 실려 있다. 『십죽재서화보』 「과보」가 형성된 배경으로 명말 문인들의 청완 문화의 확산을 들고 있다. 청완 문화를 대표하는 문진형(文震亨, 1585~1645) 『장물지(長物志)』 「소과」와 비교해 보면 대체로 일치하는 편이다.

2. 과도와 사생

남송대 『선화화보』에서 소과가 독립된 화문으로 발달했음에도 해당하는 화가는 단 여섯 명으로 다른 화문에 비해 매우 빈약하다. 「소과서론(蔬果敘論)」에서 화조도 능했던 서희(徐熙, 942~998)나 서숭시(徐崇嗣)는 소과에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듯이, 실제 소과를 그렸던 화가는 이보다는 많았으리라 짐작되지만 다른 화문에 비해 매우 적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관련된 그림 또한 적은 편이다. 소과 화문의 그림이 적은 이유를 「소과서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뜰에 물을 주고, 밭일을 배우는 것은 옛사람들이 원하던 일이었다. 그리고 이른 부추와 늦같이 배추 및 능금과 자두에 관한 이야기도 모두 한림과 자목의 미담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채소와 과일이 그림 속에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채소와 과일을 정교하게 사생하기란 매우 어렵다. … 마름과 썩도 음식으로 올릴 수 있고, 앵두도 제수로 올릴 수 있는 물건이다. 그렇다면 이를 그리는 자가 어찌 한갓 색채만을 일삼아서 구경거리로 만드는 것에 그칠 수 있겠는가? 시인은 초목과 층어의 성질을 많이 알아야 하는데, 화가가 조화옹의 솜씨를 빼앗고 생각이 절묘한 곳에까지 미칠 수 있는 방법도 역시 시인이 시를 지을 때와 같다. …⁸

채소와 과일은 고사도 있고, 제수로 올려질 수 있는 중요한 물건으로 충분히 그림으로 그려질 대상이지만, 채소와 과일을 ‘사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생

8 『宣和畫譜』, 「蔬果敘論」 灌園學圃, 昔人所請, 而早韭, 晚崧, 來禽, 青李, 皆入翰林, 子墨之美談, 是則蔬果宜有見丹青也. 然蔬果於寫生, 最爲難工. … 況夫蘋蘩之可差, 含桃之可薦, 然則丹青者, 豈徒事朱鉛而取玩哉? 詩人多識草木蟲魚之性, 而畫者其所以豪奪造化, 思入妙微, 亦詩人之作也. 번역문은 『선화화보- 북송 취종의 회화 인물사』를 따랐으나, 早韭의 번역을 ‘이른 부추나물’에서 ‘이른 부추’로 수정했다. 신영주, 『선화화보: 북송 취종의 회화 인물사』 (문자향, 2018), pp. 557-559.

은 실물을 그대로 그린다는 뜻을 넘어 살아 있는 대상물의 생의(生意)와 생기(生氣)를 표출과 그 입신(入神)의 경지를 뜻하기도 했다.⁹

그리고 과일과 채소를 잘 그리기 위해서는 성질 파악을 잘 해야한다고 하며, 이는 시인과 같다고 해 화가에게 문인과 같은 수준의 지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채소와 과일은 비교적 단순한 형태이거나 비슷한 형태로 인해 구분되도록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어렵다. 청대 사왕오운 중 한 화가인 운수평(惲壽平, 1633~1690)은 채소와 과일이 가장 그리기 어려운 과목이라고까지 표현했다.¹⁰ 동양 회화에서 사생의 의미는 더 확대하여 대상의 외형적인 유사함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속성까지 표현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사생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였다.¹¹

조선시대 사생을 중요시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강세황(姜世晃, 1713~1791)을 들 수 있다. 그는 사생을 중요시하여 그림 비평의 주요 기준으로 삼았으며 본인 스스로도 사생에 힘을 기울였다. 제자 신위(申緯, 1769~1845)가 스승 강세황을 평한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생하는 일은 산수를 그리는 일보다 어려운 것이라고 일찍이 생각하였다. 곧 조심스럽게 지분(脂粉)을 칠할 때에도 오히려 투박하게 칠해질까 염려가 되거늘, 하물며 경솔하게 붓을 휘둘러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능가하는 솜씨를 부린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 오직 사람이 생각을 깊이 짜내는 데에 달려 있을 뿐이지, 글을 짓는 일과 그림을 그리는 일은 결코 두 갈래의 다른 뜻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화학(畫學)은 단지 그림에서만 구하기 때문에 그림과의 거리가 날로 멀어졌다. 또 사대부들은 시(詩)·서(書)·화(畫)의 진수가 동일한 원리라는 것을 모르는 채 그림 그리는 한 일을 화원(畫員)에게 맡겨 버리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워한다. 그러니 여기에서 문을 지음이 무디고 거침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산수화에 있어서는 더러 알려진 사람이 있으나, 사생에 있어서는 하나도 알려진 사람이 없다. 만약 있다손 치더라도 마치 섬세하게 묘사하는 화원체(畫院體)에서 나온 것이어서 반드시 치칙한 수묵으로 쏠린다. 우리나라 400년 동안에는 오직 판서를 지낸 강표암(姜豹菴)만이 사생

9 고연희, 앞의 논문(2014), pp.57-61.

10 金原省吾, 민병산 역, 『東洋의 마음과 그림』 (새문사, 1978) p.354.

11 이내옥, 『공제 윤두서』 (시공사, 2003) p.140.

에 우뚝 뛰어났다.¹²

신위는 사생하는 일이 산수를 그리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한편, 시·서·화가 동일한 원리라고 하여 『선화화보』 「소과서론」에서 시인과 화가의 지식을 동일시 한 내용을 잇고 있다. 그리고 조선에서는 그림의 원리를 모른 채 화원에게만 맡겨 거칠어짐을 안타까워하며, 강세황만이 사생에 능했음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사생은 앞서 언급한 살아 있는 대상물의 생의와 생기가 표출되어 입신의 경지를 담고 있는 그림이란 뜻으로 화조화를 뜻한다고 해석된다.

III. 중국 본초학과 삽화

동아시아의 한의학은 크게 본초학(本草學)과 침구학(鍼灸學)으로 이뤄져 있다. 침구학은 인체에서 경혈의 기능을 중시하여 침과 뜸을 사용해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동양 고유의 의술이며, 본초학은 각종 질병을 약물로 치료하는 의술이다. 본초학은 약물의 명칭, 성질, 효능, 산지 등을 조사 연구하여 분류하는 학문으로¹³ 본초는 약물이 될 수 있는 모든 자연물을 지칭하여, 동물, 식물뿐 아니라 돌과 물, 동물의 배설물 까지도 포함된다. 본초서(本草書)는 초기 글만으로 서술하였으나, 약물에 관한 정보 전달을 위해 그림이 추가했다. 본초서는 수요가 많은 실용서였기 때문에 주로 목판화로 제작되었으며, 여러 차례 복각되기도 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취사, 선택하여 재편집되면서 오랜 세월 동아시아 전역에서 활용되었기 때문에 본초서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다.

12 申緯, 『警修堂全藁』, 「東陽申緯漢叟」, “余嘗以爲寫生, 難於山水. 卽工染脂粉. 尙患笨伯. 況可議率爾命筆. 肖奪天工耶. 文字離於筆墨. 而又到筆墨所未到之地. 毛詩尙矣. 爾雅之分門別類. 離騷之標舉寄托. 直與造物者爭工. 吟釋之頃. 芬芳溢簡. 形色湧紙. 自後古今名雋七言五字. 往往有生香活色. 猝然遇之. 如見其眞. 惟在人精思熟參. 文工繪事. 了非二義. 我東畫學. 但求之於畫. 故去畫日遠. 且士大夫不知詩書畫髓同一法. 乳繪素一事. 委之院人而耻言之. 卽此文字鹵莽. 可以反隅. 山水名家. 或有可以稱說者. 至於寫生. 寂然無聞. 卽有之. 若出於院體工細. 必入於水墨勁勳. 四百年間. 惟一姜豹菴尙書超超玄箸”

13 오재근, 김용진, 「조선 후기 『본초강목』의 전래와 그 활용: 『본초정화』, 『본초부방편람』을 중심으로」, 『醫史學』20:1 (2011. 6), p.29.

140 『본초강목(本草綱目)』이 조선 후기 과도(果圖)에 끼친 영향

1. 중국 본초학과 삽화의 발달

본초학은 실제 약물을 확인하고,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약물에 해당하는 대상 물질을 시각화하는 것은 필연적이었다. 대상을 시각화하고 판각하는 작업은 화가와 각수의 영역으로 본초학의 삽화 작업에 이들의 활동은 당연했다. 그러나 그림의 대상과 제작 의도는 정확한 지식의 전달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감상화나 길상화와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동아시아의 가장 오래된 화론서인 당나라 장언원의 『역대명화기』에서 본초학과 관련된 책과 그림을 언급하고 있다. 제5권 「귀중한 옛그림을 기술하다(述古之秘畫珍圖)」에서 예로부터 비장했던 귀중한 그림 중 흩어져 없어버린 그림으로 왕찬의 〈용어하도(龍魚河圖)〉 등과 함께 ‘신농본초열도 일(神農本草列圖 一)’, ‘영수본초도 육(靈秀本草圖 六)’, ‘본초도 이십오(本草圖 二十五)’ 등 3권의 본초도 서적을 귀중한 옛 그림으로 언급하고 있다.¹⁴

〈신농본초열도〉는 가장 오래된 본초서였던 신농본초를 뜻하는 것인데 열도(列圖)라고 한 것으로 보아 여러 삽화가 있었을 것이다. 〈영수본초도〉는 원중평이 저술했으며, 약초인 적전(赤箭)에서 시작하여 곤충인 청정(蜻蛉)까지를 포함한 6권의 책이라고 한다. 즉 식물에서 동물까지 다 포함한 본초서로 삽화로 동물과 식물 모두 시각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초도〉는 당나라 소경(蘇敬)이 쓴 저술로 25권이나 된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해 볼 때 장언원 이전에 이미 본초 관련 그림이 상당히 많이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내용들은 후대 본초서로 흡수되어 전하지만, 현전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이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장언원이 본초학과 관련된 그림을 회화사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형태 묘사에 집중한 본초도를 그림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본초학은 다양한 동물과 식물을 다루기 때문에 본초서 삽화는 소재적인 측면에서 화조화와 겹친다.

현전하는 삽화가 있는 가장 오래된 본초서는 송대 『경사증류비급본초(經史證類備急本草)』이다. 축약해 『증류본초』라고도 부르는데, 우리나라에도 유입되어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증류본초』에서 시각화된 본초는 매우 한정적이었으며, 선이

14 장언원, 조송식 역, 『역대명화기』(上)(시공사, 2008), pp.325-336. “○神農本草列圖一○靈秀本草圖六起赤箭, 終蜻蛉源平仲撰○本草圖二十五其形狀蘇敬撰顯慶中事”

경직되어 표현이 떨어지는 편이다.¹⁵⁾도1

중국 명대는 본초와 관련된 학문이 박물학으로 변화해가는 분기점으로 본초 혁신의 시대라고 불리며 본초서가 급격히 증가했다. 본초학의 발달과 함께 삽화의 발전도 이뤄졌는데, 주숙(朱橚, 1361~1425)의 『구황본초(救荒本草)』(1406)는 그림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¹⁶⁾ 때로는 필사로 채색한 본초서 『본초품휘정요(本草品彙精要)』(1505) 홍치제(弘治帝)를 위해 제작되기도 했다. 그러나 시대를 대표하는 본초서는 이시진의 『본초강목』이다. 1596년 처음 간행된 『본초강목』은 1,892종의 본초를 담은 총 52권의 거대한 종합 본초서이다.¹⁷⁾ 『본초강목』은 편찬 이후 동아시아 약물학의 대표적 문헌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세계적으로 유포되었다.¹⁸⁾ 첫 간행된 이래 중국에서만 100여 차례 판각되거나 영인되었으며, 한국과 일본 뿐 아니라 유럽까지 유입되었다.¹⁹⁾



2. 『본초강목』의 삽화

이시진의 『본초강목』은 이제까지 본초학을 집대성했을 뿐 아니라, 본초학의 체계를 이전과 달리 구성했다. 본초학 삽화를 본문 사이에 삽입하던 이전의 방식과 달리 삽화를 『본초강목』에서는 서권으로 묶었다. 이시진은 그 이유를 「본초강목도서(本草

1

〈여지〉 『경사증류비급본초』
국립중앙도서관

- 15 『경사증류비급본초』도 오랜 시간 여러 지역에서 복각되면서 삽화의 질은 판본마다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판본을 참고했다.
- 16 주숙은 주원장의 다섯째 아들로, 흉년이 들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 만든 책이다. 이 책에는 총 414종의 식물을 실고 있다.
- 17 이시진이 1578년에 원고를 완성하였으나, 1590년에 남경의 각서가(刻書家) 호승룡(胡承龍)이 자기 비용으로 각인(刻印) 작업을 시작하여 1596년 처음으로 출판되었다. 사망 3년 후로 이시진은 출판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 강석호, 「중국명저 60부 중 과학 기술 관련서적 15종 소개(13): 본초강목(本草綱目)」, 『한국화학공학회』, 33:3 (2015), pp.347-350.
- 18 권오민, 차용석, 박상영, 오준호, 안상, 『『東醫寶鑑』과 『本草綱目』의 한국적 專有와 조선후기 의학 특성의 형성- 『本草類函』과 『本草類函要領』을 중심으로』, 『韓國韓醫學研究院論文集』17:3 (2011) p.17.
- 19 일본의 경우 본초강목 초판이 나온 뒤 8년 후인 1604에 일본으로 건너가고 33년 후인 1637년에는 和刻本이 간행되는 등 본초 자체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으며, 예수회 선교사 보임(P. Michael Boym)에 의해 『본초강목』의 22종 본초 관련 내용이 *Flora Sinensis*라는 이름으로 유럽 비엔나에서 번역 출간되기도 했다. 오재근, 김용진, 앞의 논문, p.31.

綱目圖序)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종래의 그림들은 묘사하고 그린 것이 세밀하나 그 형체가 유사한 것들을 분석할 겨를이 없었으므로 이 때문에 널리 배우고 많이 아는 사람들도 매번 많이들 명자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귤나무인지 유자나무인지를 확신하지 못했다. 이에 상세히 고찰하고 서로 비교한 것을 모아 실물과 아주 닮도록 베껴 두었으니 비록 먼 지방에서 쓰는 특이한 본초라도 그림을 살펴보면 찾을 수 있다. 어찌 다만 이름만 많이 아는 데 그치겠는가.²⁰

또한 초간본 『본초강목』에 총 1,109개의 삽화를 담고 있다는 것에서도 그가 얼마나 본초학에서 삽화를 중요시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시진의 노력과 주장에도 불구하고 초간본의 그림은 부정확하다는 평을 받았다. 금릉에서 출간한 초간본의 그림은 기본적으로 『증류본초』를 본으로 하여 아들인 이진원(李建元)이 담당했는데 전문 화가가 아니어서 그림에 오류가 많았다고 한다.²¹ 중국에서 이를 개선한 그림본이 두 차례 제작되었다. 두 번째 그림본은 1660년 육철(陸楫)의 그림을 판본으로 제작한 것으로 항주본(杭州本) 또는 전씨본(錢氏本)이라 부르며 삽화는 총 1,110개이다. 청대 다시 미고재본(昧古齋本)이라 불리우는 판본이 제작되는데 1885년 허공보(許功甫)가 그린 1,122개의 그림을 수록하고 있다.²² 항주본이 가장 오랜 기간 유통되었으며 『사고전서(四庫全書)』에도 항주본이 포함되는 등 가장 영향력이 컸다고 본다.²³

『본초강목』 「본초강목도권(本草綱目圖卷)」은 금석부(金石部), 석부(石部), 초부(草部), 곡부(穀部), 채부(菜部), 과부(果部), 목부(木部), 충부(蟲部), 인부(鱗部), 개부(介部), 금부(禽部), 수부(獸部) 12부로 약성을 가진 다종다양한 생물과 무생물을 시각화했다.²⁴ 약초뿐 아니라 일상적인 식품으로 생각하는 각종 채소와 곡류, 과일, 물고

20 “從來圖繪絢飾爲工，未暇析其形似。是以博物君子每多植梨橘柚之疑，茲集詳考互訂，擬肖逼真，雖遐方異物，按圖可索，奚第多識其名已也” 李時珍, 『本草綱目』, 「本草綱目圖序」, 한국한의학연구원. <https://medicclassics.kr/books/190/volume/1> (2022. 9. 20 검색).

21 때로는 다른 아들李建木도 함께 그렸다고 한다.

22 R. Sterckx, “The Limits of Illustration: Animalia and Pharmacopeia from Guo Pu to Bencao Gangmu,” *Asian Medicine* 4 (2008), pp.357-394.

23 본 논문에서는 주로 『사고전서』의 판본을 분석했다. 비록 조선에 『사고전서』가 들어오지 못했으나, 1885년 이전 개별적으로 들어온 『본초강목』은 항주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4 본문은 이보다 많은 16부로 구성되어 있다. 水部, 火部, 土部, 金石部, 草部, 谷部(곡식), 菜部, 果部, 木

기, 새, 축수, 곤충과 돌 등 거의 모든 자연물이 시각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약명을 상단에 적고 대상 물질을 한 면에 묘사하였으며, 때로 필요한 정보를 부기해놓았다. 그림을 주로 배경 없이 대상 자체를 그린 것이지만 때로는 제작과정을 묘사한 것, 관련된 고사를 시각화하여 인물이나 누각이 함께 그린 경우도 있다. 한편 용과 용의 뼈도 포함시켜, 당시 의학 지식의 한계를 보여주기도 한다.

본초학 삽화는 작화 의도는 분명하다. 한의학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해야 한다. 특히 『본초강목』은 1,000여 점이 넘는 물질을 하나하나 시각화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이제까지 전통적인 회화에서 그림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거의 모든 동·식물을 관찰하고 획득한 지식을 시각화했다. 『본초강목』의 삽화는 동아시아에서 오랜 세월 누적된 한의학 지식이 대량으로 시각화되고, 동아시아 전체에 확산되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는 동아시아 사람들의 시각이미지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3. 『본초강목』의 조선 유입과 영향

이제까지 조선에서의 본초학은 향약의 발달과 『증류본초』의 우세하여 오랫동안 『본초강목』이 영향이 적었다고 알려져 있었다. 또한 조선 유입 시기를 미키 사카에(三木榮, 1903~1992)의 연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오랫동안 1712년(숙종 38)으로 상정해 와²⁵ 그동안 『본초강목』에 대한 관심이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근래 연구에서 1614년과 1615년 허균은 중국에 가서 4,000여 권의 서적을 사왔고 당시 조선과 청의 관계 및 학자 간의 왕래를 감안할 때 1712년보다 앞서 여러 가지 판본의 『본초강목』이 조선으로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²⁶ 『본초강목』의 조선 유입 후 영향 관계도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우선 의학서로서 본초학 발전에 영향을 끼쳤으며, 『산림경제』와 『임원경제지』와 같은 유서에 흡수되었다.²⁷ 또한 조선 후기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그리고 문인들의 문집에서 산견된다. 가장 이른 예로 『승정원일기』 인조 26년(1648) 서과(西果)에 대해 논한 것이며, 이후 지속적으로 『본초

部, 服器部, 蟲部(벌레), 鱗部(물고기비늘), 介部(어개류), 禽部, 獸部, 人部.

25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三木榮, 1963).

26 오재근, 김용진, 앞의 논문, p.31.

27 오재근, 「『본초강목』이 조선 후기 본초학 발전에 미친 영향: 미키 사카에의 『임원경제지』 본초학 성과 서술 비판」, 『醫史學』21:2(2012), pp.193-225.

강목』을 참고한 내용을 담은 기사가 있다.²⁸ 민간에서도 『본초강목』의 내용을 참고하여 처방에 활용하거나, 약초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가졌을 뿐 아니라 도판을 활용하여 본초를 확인하는 정황을 여러 문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익(李瀼, 1681~1763)은 『성호사설』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으며, 특히 남과(南瓜)에 대해 살필 때 『본초강목』을 참고했다.²⁹ 유득공(柳得恭, 1748~1807)은 『영재집(冷齋集)』 「귤책(橘策)」에서 『본초강목』을 근거로 삼아 귤이 예로부터 과일의 으뜸으로 칭송되어왔음을 말했고³⁰, 정약용(丁若鏞, 1762~1836)도 농어를 가치를 재인식했다.³¹

무엇보다 『본초강목』의 삽화는 사물을 확인하는데 활용되었다. 정약용은 농어에 대해 잘 몰랐다가 『본초강목』의 그림을 참고하여 어느 생선이 농어인지 식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정약용의 시 「송파수초(松坡酬酢)」의 시작 부분이다.

한강에는 예부터 농어가 많았는데 내가 식견이 거칠어서 어떤 것이 농어인지 미처 몰랐다가, 이제 《본초》 및 고인의 시구를 상고해 보고서야 비로소 그 이름을 바로 잡았는 바, 해거 도위가 급히 그 고기를 보고자 하므로 겨우 한 마리를 잡아 회를 쳐 놓고 장난삼아 장구를 짓다³²

그리고 이규경은 시초(蓍草)라는 약초를 확인하는데 『본초강목』의 삽화는 참고했으며³³ 박규수(朴珪壽, 1811~1877)는 사삼(沙蔘)을 확인했다.³⁴

IV. 『본초강목』삽화와 화조화

조선 후기 『본초강목』의 삽화와 화조화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언술한 글이 있어 주목된다. 앞서 『본초강목』의 삽화를 참고하여 사삼을 확인했던 박규수의 글이다. 그

28 『承政院日記』 仁祖 26年 9月 19日.

29 李瀼, 『星湖僊說』, 「萬物門」.

30 柳得恭, 『冷齋集』, 「橘策」按本艸綱目果之類, 凡一百二十有七, 而橘居一焉.

31 松坡酬酢, 李珍書來鳩化鷹.

32 丁若鏞, 『茶山詩文集』, 松坡酬酢, 洌水故多鱸魚 鹵莽不知其爲鱸 今檢本草及古人詩句 始正其名 海尉亟欲見之 董捕一枚鱸之 戲爲長句.

33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經史篇」 蓍草辨證說.

34 朴珪壽, 『壺齋集』, 「書牘」 與尹士淵.

는 『환재집(瓊齋集)』 <고정림 선생이 《일지록》에서 그림을 논한 구절에 대한 발문(錄顧亭林先生日知錄論畫跋)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가장 작은 것을 들어본다면, 영모·초충·화훼(花卉)의 종류는 마음을 기울일 가치가 없는 듯하지만, 이것은 매우 옳지 않다. 이동벽(李



東璧)의 《본초강목》은 본초가(本草家)의 설을

집대성한 책인데, 여러 주석가들이 형태와 색깔의 동이(同異)를 논변하면서 어지러운 논란이 그치지 않음을 나는 매양 안타깝게 여겼다. 이씨(李氏)가 비록 일일이 고거(攷據)하고 정정(訂正)하였을 테지만, 그 그림이 정밀하지 못하여 지금까지도 채취에 실수하여 잘못 복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는 좋은 화사(畫師)를 만나지 못한 까닭으로 민생에게 해를 끼침이 이와 같으니, 이 어찌 작은 일이라고 하여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이로 미루어 말하자면 산수, 인물, 누대, 성시, 충어를 막론하고 오직 진경(眞境)과 실사(實事)라야 마침내 실용(實用)으로 귀결되니, 그렇게 된 뒤에야 비로소 '화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른바 학문이란 모두 실사이다. 천하에 어찌 실(實)이 없으면서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겠는가.³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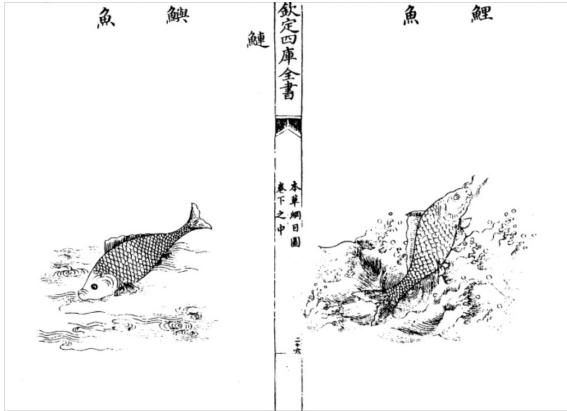
2
〈산작〉 「금부」 『본초강목』

3
〈호〉 「수부」 『본초강목』

박규수가 1855년 중국의 문인 고염무(顧炎武, 1613~1682)의³⁶ 『일지록(日知錄)』을 읽고서 그림이 지닌 의미에 대해 탐구해 쓴 글이다. 영모·초충·화훼 화문의

35 朴珪壽, 『瓊齋集』, 「雜著」 又當學其最小者矣。翎毛草蟲花卉之類。有似無足致意。亦殊不然。每恨李東璧本草綱目。爲本草家集成之書。而諸家形色同異之辨。紛然未已。李氏雖一一攷據訂正。而其繪畫未精。a312_371b到今有誤採謬用者甚多。蓋未遇良畫師之故。流害民生。有如是矣。此豈可以細故忽之哉。推是論之。無論山水人物樓臺城市草木蟲魚。唯是真境實事。究竟歸於實用。然後始可謂之畫學矣。凡所謂學者。皆實事也。天下安有無實而謂之學也者乎。

36 고염무(顧炎武, 1613~1682)는 명나라 문인으로 원명은 강(絳)이고, 자는 충청(忠淸), 호는 정림(亭林)이다. 명나라가 망한 이후에 이름을 염무(炎武)로 자는 영인(寧人)으로 고쳤다. 항청운동에 참여를 하였고, 후에는 학술 연구에 힘을 쏟았으며, 만년에는 경학의 고수에 힘을 쏟았다. 저서로는 《일지록》, 《천하군국이병서(天下郡國利病書)》, 《음학오서(音學五書)》 등이 있다. 한국고전번역원 참고. <https://db.itkc.or.kr/> (2022. 10. 10 검색).



4
〈잉어〉〈서어〉
『인부』 『본초강목』

5
김인관
〈조어도〉
연도 미상
종이에 담채
27.8×39.2cm
국립중앙박물관

발달 문제를 『본초강목』의 삽화와 연결지어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당시 그림에 실사를 제대로 담지 못한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나아가 『본초강목』의 삽화도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가 본 『본초강목』판본의 상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실제 본초를 적용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부족함을 느낄 수 있다. 이 글은 조선시대 문인으로서 정보 전달을 위한 실용적 그림의 가치를 인정한 글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박규수는 연암 박지원의 손자로 집안의 실학적 학문 분위기를 이고 있다고 본다.

『본초강목』삽화와 화조화의 영향 관계가 여러 측면에서 보인다. 기존의 회화 발달이 『본초강목』삽화에 영향을 끼친 측면과 반대로 『본초강목』이 회화의 발달에 영향을 끼친 측면이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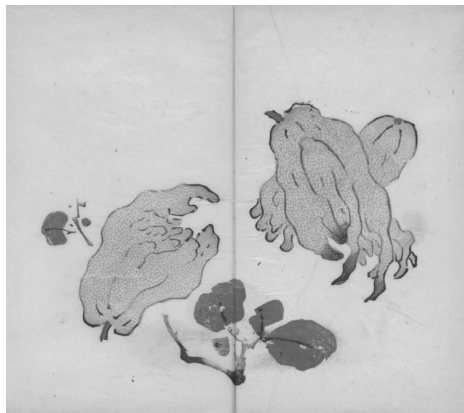
기존의 화조화 소재로 발달하여 그림이 많이 된 경우 자연스러운 형태로 묘사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정보 전달에 집중하며 경직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금부」에서 대부분 새의 묘사는 자연스러우며 배경도 풍부하게 묘사한 반면 「수부」의 동물 묘사는 대부분 대상만 담고 있다. 화조화의 오랜 전통을 가진 새 그림의 경우 『본초강목』삽화 제작에 참고할 자료가 많았을 것이지만, 전통적인 그림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동물의 묘사는 매우 경직되어 있다. 따라서 『본초강목』의 삽화는 이전의 회화 전통을 최대한 흡수하면서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도2, 도3

반대로 『본초강목』의 삽화도 화조화의 발달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본초강목』 〈어부어류(魚部魚類)〉에서 잉어(鯉魚)는 마치 등용문으로 오르듯 활기차지만 다른 물고기들은 매우 경직되어 마치 죽은 물고기를 관찰한 듯하다. 『본초강목』에 그려진 경직된 물고기들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김인관(金仁寬, 17세기)의 〈조어도(藻魚圖)〉를 연상시킨다. 이 그림에 있는 강세황은 제발은 많은 함의로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도4, 도5

옛적에는 이것으로 한 세대에 이름을 날렸는데 지금 사람은 도리어 이것을 중하게 여지지 않는다. 표암³⁷

사생을 증시했던 강세황은 김인관의 그림을 좋게 평가하며, 현재 사람들이 중히 여기지 않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김인관의 생애에 대해 알려진 바가 많이 없지만³⁸ 변영섭은 강세황의 화풍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고연희는 김인관의 다른 화권첩 제발이 강세황의 것으로 밝힌 바 있다.³⁹

『본초강목』과 기존 회화와의 관계를 가장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재는 과일인 불수감이다. 『본초강목』 「과부산과유(果部山果類)」중 <구연(枸櫞)>과 『십죽재서화보』의 불수감은 명칭은 다르지만 동일한 화본을 공유한 듯이 과일의 수, 배치와 크기, 형태가 거의 동일하다. 배경 없이, 두 그림의 사이의 관계성은 분명하지만 선후의 문제를 단언하기는 어려우며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두 도서가 제작된 시기가 비슷하며, 지역이 금릉, 항주 등으로 중국 강남 출판 산업이 발달한 점, 『십죽재서화보』의 저자 호정언이 의원 집안 출신으로 의학서 출판 경력이 있었던 점⁴⁰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도6, 도7



6
〈구연〉 「과부」 『본초강목』

7
〈불수감〉
「과보」 『십죽재서화보』

37 昔以此名一代，今人反不以爲貴，豹菴。

38 김인관은 字가 福也, 號는 月峰으로 『權域書畫徵』에는 1636~1706년에 생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1718년에 국가 행사에 동원된 기사가 밝혀짐으로써 18세기 전반까지 활동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고연희, 「화가 김인관(金仁寬)에 대한 기억」, 『문헌과 해석』89 (2022), pp.187-226.

39 변영섭, 『표암 강세황 회화 연구 개정판』(사회평론, 2016), p.364; 고연희, 위의 논문, p.190.

40 Suzanne E. Wright, "Hu Zhengyan: Fashioning Biography," *Ars Orientalis*, 35 (2008), pp. 129-136.

V. 조선 후기 이국 과일의 그림

1. 조선의 이국 과일

이국 과일은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본초강목』이 분류한 이국의 과일과 조선시대 이국의 과일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본초강목』 「과부」는 오과류(五果類), 산과류(山果類), 이과류(夷果類), 미류(味類)⁴¹, 고류(苽類), 수과류(水果類)⁴²로 하위 분류를 두고 있는데 이국의 과일인 이과류에 여지(荔枝), 용안(龍眼), 감람(橄欖), 비실(榲桲), 해송자(海松子), 빈랑(檳榔), 아자(椰子) 등이 그려져 있다.⁴³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해송자(갯)과 비자나무 열매가 『본초강목』에서는 이과류로 분류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이국 과일로 상정되는 불수감(佛手柑)과 비파(枇杷)는 산과류에 분류되어 있다.

조선 전기 이국 과일 유입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명나라 사신의 외교 선물 목록이 대표적이다. 야표(椰鰲)⁴⁴ · 여지 · 용안 · 막고(莫姑) · 황고(黃姑)⁴⁵ · 귤(橘) 등이 서적과 말, 금은기와 함께 외교 선물로 왔다. 제주에서 생산이 가능한 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선에서 자랄 수 없는 과일이며, 야표의 경우 8개, 10개 등 정확한 수량을 기록할 정도로 매우 귀하게 취급되었다.

한편 이국 과일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기도 한다. 『종묘의궤』(1667)부터 당유자, 청포도, 수박, 참외가 새롭게 등장하여 이 네 가지 과일은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그 생산과 품질이 수준에 도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당유자의 경우 성종 3년(1472)에 당귤과 왜귤의 종자를 제주의 3읍에 재식 배양하여 성공했고⁴⁶, 숙종 28년(1702)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에 당금귤(唐金橘) 678개를 진상한 기록이 있어 외래종 귤의 이식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수박, 참외도 이전부터 조선 내 생산이 가능했지만 유입 후 완전히 정착되기 전이라면 이국 과일에 버금가는 귀한 과일이었을 것이다. 연

41 산초 등 향신료에 해당하는 열매이다.

42 연근, 마름 등 물에서 자라는 식물의 열매이다.

43 『본초강목』 「과부」 夷果類에는 荔枝, 龍荔, 龍眼, 橄欖, 巷羅勒, 毗梨勒, 五斂子, 榲桲, 海松子, 檳榔, 椰子, 武樓子, 桃椰子, 紗木麵, 波羅蜜, 無花果, 沙棠果, 都念子, 馬檳榔, 枳椇가 있다.

44椰子

45莫姑는 망고, 黃姑는 바나나로 추정된다.

46 『成宗實錄』 成宗 3年 1月 30日; 成宗 20年 2月 24日.

산군(燕山君, 1476~1506)대 여지, 용안, 수박, 배, 유자, 참외 등을 중국에서 수입해 오도록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임진왜란 이후 관찬 사료에서 외교 선물로 과일이 온 기록은 없어졌다. 대신 조선 전기 외교 선물로 왔던 용안과 여지가 조선 후기 왕실 의례의 음식으로 수입된 것으로 파악된다. 숙종 7년(1681)에 혼전에 용안을 올린 기사가 있으며, 정조 19년(1795) 연향부터 마지막 연향까지 용안과 여지의 사용이 이어졌다.⁴⁷ 용안과 여지는 주빈을 위해서만 마련되었고, 연향의 주최자인 국왕에게도 바치지 않아 이국 과일이 왕실 연향에서 신분의 차이를 드러내는 상징체로 작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홍대용(洪大容, 1731~1783)은 북경 사행에서 돌아올 때 용안과 여지를 수입한 것에 대해 언급했으며⁴⁸ 19세기 초 민간에서 제수로 올리거나, 19세기 말 큰 잔치에 사용한 기록이 있어 당시 왕실과 부유층의 용안과 여지 수입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⁴⁹

이에 비해 조선 후기 새롭게 등장한 이국 과일인 불수감과 비파의 경우 조선으로의 직접적 유입은 보이지 않고, 사행단의 경험으로만 전한다. 1790년 건륭제의 만수절 사행단의 귀국 보고에 불수감이라는 과일이 처음으로 사료에 기록되었다.⁵⁰ 이보다 앞서 박지원의 『열하일기(熱河日記)』(1780)에 흰색 유리그릇에 담긴 세 개의 불수감을 목격한 내용이 있다. 대부분 이국의 과일이 중국을 통해 인식하고 수용한 것에 비해 비파는 주로 일본을 다녀온 사행록에서 언급되어 있다. 『부상록(扶桑錄)』(1617), 『동사록(東槎錄)』(1624) 등 대마도에서 공과 받은 사실이 있으며, 남용익(南龍翼, 1628~1692)의 『문견별록(聞見別錄)』에는 우리나라에 없는 과일로 비파를 설명하고 있다.⁵¹

47 이전의 연향에서는 대추, 밤, 감, 배, 포도, 석류, 유자, 수박 등 조선에서 생산이 가능한 과일을 사용했다.

48 사행단이 책문 밖에서 상호간에 물품 교역을 하는데, 柵門의 상인들로부터 사들이는 물품은, 棉花·咸錫·蘇木·胡椒·龍眼肉·荔枝·閩薑·橘餅과 磁器 등이었다. 洪大容, 『湛軒書』

49 李鈺 『白雲筆』, 『諺解厚生錄』.

50 『日省錄』 正祖 14年 9月 27日.

51 南龍翼, 『聞見別錄』, 風俗·園林, 其中我國之所無者. 有枇杷. 十月開花. 花如杏花而色黃. 至月結子如葡萄. 至五月始熟. 味甚甘潤. 有金柑. 大如榛子. 皮薄味酸. 而香烈過於柑橘. 皆珍果也.

2. 조선 후기 이국 과일의 그림

조선 후기 과일이 독립된 화문로 성장하여 다양한 과일이 그림으로 그려졌다. 강세황과 심사정이 중심이 되었으며, 포도, 감, 복숭아, 참외, 수박, 밤, 석류, 여지, 용안, 불수감, 비파, 유자 등이 그려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독 소재로 외에도 책가도나 기명절지도와 같이 길상적 성격이 강한 그림에는 수박, 포도, 불수감과 복숭아, 비파 등이 자주 그려졌다. 감이나 밤과 같이 고사와 관련된 경우를⁵² 제외하면 대부분 당대 귀한 과일이며, 보기 거의 불가능한 이국의 과일이 주를 이룬다. 조선 후기 여지, 용안을 비롯해 불수감, 비파 등 이국 과일이 그림으로 등장하는 것은 조선 전기와는 분명 다른 현상이다.

대표적인 이국 과일이 여지인데, 강세황과 심사정의 그림이 전한다. 현재 《산수도(山水圖)》(이명《제이표현첩(第二豹玄帖)》, 《제가화첩(諸家畫帖)》)라고 불리는 화첩에 함께 묶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⁵³도8 심사정의 여지 그림은 연원이 불분명하지만 강세황의 여지 그림은 『십죽재서화보』를 원본으로 하고 있다.^{도9} 그의 초기 화보인 『첨재화보(忝齋畫譜)』에 있는 류경종(柳慶種)의 발(跋)에서 『십죽재서화보』를 방하였다고 하였으므로 그 영향관계는 분명하다. 한편 『본초강목』의 여지도 함께 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반전시켰을 때 유사도는 더 높아진다.^{도10}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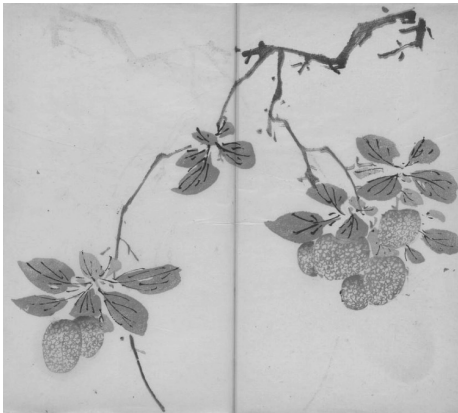
강세황
〈여지도〉《산수도》
연도 미상
비단에 담채
21.6×18.3cm
국립중앙박물관

9

〈여지〉
『과보』 『십죽재서화보』

10

〈여지〉 『과부』 『본초강목』



52 밤과 감이 그림의 대상이 된 것은 남송 목계(牧谿, 13세기 활동)부터로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 강희연, 『목계(牧谿)의 〈六柿圖〉: 신화의 탄생과 역사적 진실』, 『美術史學研究』309 (2021), pp.145-178.

53 이제까지 변영섭과 유순영 등의 연구에서 《第二豹玄帖》로 명명했다. 그러나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상태는 《산수도(山水圖)》(소장번호 본관 2514)이며, 이 화첩에는 강세황과 심사정 작품 외 신위의 목죽도와 목죽석도가 포함되어 있다.

강세황의 <여지도>에 연객(煙客) 허필(許泌, 1709~1768)의 제 발문이다.

화가들은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을 잘 그리는데, 용을 그리는 것도 그런 것이다. 지금 이 여지도 마찬가지이다.⁵⁴

내용은 용을 보지 못한 화가가 용을 잘 그리듯이 여지도 보지 못했는데 여지를 그린다는 뜻이다. 제발을 쓴 허필은 강세황과 허물 없이 지난 친구로 강세황이 자신보다 자신을 잘 안다고 말한 사이였다. 이 제발문에 의하면 적어도 이 그림을 그릴 때 강세황은 여지를 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강세황은 송나라 채양(蔡襄, 1012~1067)의 『여지보(荔枝譜)』를 임서한 적이 있다.⁵⁵ 강세황은 여러 경로로 여지에 대한 지식을 습득했고, 이는 여지에 대한 호기심을 증폭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불수감은 여지와 달리 조선 후기가 되어서야 기록에 등장하며, 주로 책가도나 기명절지도의 부분으로 그려졌다. 불수감은 감귤류에 속하는 과일로 모양이 부처님 손가락을 닮았다하여 불수감이란 이름이 붙었다. 또한 불수감의 불(佛)이 복(福)과 발음이 유사한 점을 들어 행복의 상징물로 애호됐다.⁵⁶

조선시대 불수감이 그림의 소재로 처음 등장한 것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김인관의 《산수어해화훼초충도(山水魚蟹花卉草蟲圖)》〈화훼소과도(花卉蔬果圖)〉로 보인다.⁵⁷ 이 그림은 그동안 『십죽재서화보』 「과보」의 불수감, 석류, 밤 등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⁵⁷ 본 연구자는 그림의 아래 부분에 있는 것이 밤이 아니라 귤과



54 畫家多善畫目未所親者畫龍是也今此荔枝亦然 煙客題. 번역 변영섭, 앞의 책, p.309.

55 「채양의 《여지보》를 임서하고 그 아래 쓰다」에 이어 「又書(또 쓰다)」를 덧붙였다. 『표암유고』 (지식산업사, 2010), p.454; 『여지보』는 북견지역에서 나는 여지의 기원과 생태, 먹는 법 등을 정리한 책이다. 위의 책(2016), p.309.

56 김인관은 어해도(魚蟹圖)에 뛰어난 화가로 字가 福也, 號는 月峰으로 『權域書畫徵』에는 1636~1706년에 생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1718년 국가 행사에 동원된 기사가 밝혀짐으로써 18세기 전반까지 활동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고연희, 앞의 논문(2022), pp.220-226.

57 유순영, 앞의 논문(2018), p.54; 고연희는 석류, 불수감, 귤과 가지로 보고 있다. 위의 논문, p.205.

11
작자미상
〈문방도가리개〉(부분)
연도 미상
종이에 채색
145.2×47cm
국립고궁박물관

12
 <비파>
 『과보』 『십죽재서화보』

13
 <비파> 『과부』 『본초강목』

14
 '비파'
 <기명절지도> 병풍 중 1폭
 연도 미상
 비단에 담채
 128.0×36.1cm
 선문대박물관



여지로 보며, 이런 과일과 채소의 조합은 『본초강목』 삽화의 영향으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선시대 그림에서 가장 마지막에 새롭게 등장한 이국 과일은 비파로 보인다. 『십죽재서화보』 『과보』의 <비파>는 『본초강목』 <비파>에 비해 경직되어있다. 기명절지도와 책가도의 부분으로 등장하는 여러 비파는 『십죽재서화보』보다는 『본초강목』의 비파 그림과 더 닮은 것으로 보인다. 도12, 도13, 도14

마지막으로 근대 새롭게 등장한 이국 과일, 바나나와 파인애플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근대 조선미술전람회의 당선작에 등장한 바나나와 파인애플은 근대 신문물의 상징으로 보인다. 이 중 파인애플은 아메리카가 원산지로 콜롬버스가 2차 항해에서 가지와 17세기 유럽 온실 재배 열풍을 일으켰던 과일이었다. 대중화된 것이 1901년 하와이에 파인애플 컴퍼니를 설립한 이후이므로⁵⁸ 근대 이전 동아시아의 그림에서 등장할 수 없다.

그러나 바나나는 동아시아에서 제사 음식의 은유적 표현인 초려(蕉荔)에서 나왔고, 이는 바나나와 여지 중 하나를 말한다. 한유(韓愈, 768~824)의 <유주나지묘비(柳州羅池廟碑)>를 보면 “여지는 빨강고 바나나는 노란데, 고기와 채소를 곁들여 자사의 사당에 올리네”라고⁵⁹ 읊은 구절에서 유래한 것을 알 수 있고, 아울러 조선시대 문집에 자주 표현되었다. 여지는 감상화, 화보 등으로 다양하게 그려졌지만 바나나는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은 듯하다. 바나나의 한자 표현

58 윤덕노, 『과일로 읽는 세계사』 (타인의사유, 2021), pp.58-70.

59 荔子丹兮蕉黃 雜肴蔬兮進侯堂.

은 감초(甘蕉)인데 『본초강목』에서 과일이 아니라 「초부」중 습초류(濕草類)로 분류되어 있다.⁶⁰ 본문의 내용을 보면 나무의 열매가 3가지가 있는데, 그중 양의 뿔처럼 긴 양각초(羊角蕉)가 바나나이다.⁶⁰ 그런데 『본초강목』에 식물의 몸체만 그려지고, 그 열매는 그려지지 않았다. 이는 오랫동안 동아시아에서 바나나가 그림의 대상이 되지 않은 이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양각초는 『본초강목』의 영향을 받아 일본에서 제작된 『본초도보(本草図譜)』(1708)에 삽화로 그려졌으나, 그 영향은 일본에 국한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5
〈감초〉「초부」『본초강목』

VI. 맺음말

이제까지 조선 후기 이국의 과일이 그림의 소재로 새롭게 등장한 배경으로 동아시아의 본초학 발달을 고찰해 보았다. 17세기 이후 과일 그림을 포함한 화훼도, 소과도, 초충도가 동아시아 전반에 증가한 현상이 나타났다. 그중 조선 후기 국내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이국의 과일들이 그림의 소재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현상도 포함된다. 그리고 다양한 식물과 동물, 곤충이 그림의 대상이 되었고, 새로운 구성으로 작화되었다. 기존 화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소재가 그려졌으며⁶¹ 화조화의 범주에 넣기에도 예매한 그림도 다양하게 제작되었다. 그 현상의 배경으로 본초학의 발달과 『본초강목』 삽화를 지목한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한의학은 공통의 지식 체계를 형성하며 발전하여 전문 의료인뿐 아니라 지식층이 갖춰야 할 지식이었다. 17세기 전후 동아시아의 한의학 지식이 집대성된 『본초강목』과 『동의보감』은 동아시아 전역에 유통되었다. 한의학 지식의 광범위한 유통은 관련 이미지의 유포와도 궤를 같이했다. 『본초강목』 삽화의 제작 의도는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 회화와는 구별된다. 『본초강목』 삽화는 지속적으로 동

60 파초의 씨는 3종으로, 익지 않았을 때는 모두 맛이 쓰고 떼으며, 익었을 때는 맛이 달면서 부드럽고 포도와 같은 맛이며 굼주림을 치료할 수 있다. 어떤 종자는 크기가 엄지손가락만 하고 길이는 6-7촌 정도이며 양의 뿔처럼 날카롭고 두 개씩 서로 감싸고 있는데 이것을 양각초(羊角蕉)라 한다. 껍질을 벗겨 내면 황백색이고 맛이 가장 달고 좋다. 다른 어떤 종자는 크기가 계란만 하고 소의 젖과 유사하여 우유초(牛乳蕉)라 하는데, 맛이 조금 떨어진다. 또 다른 어떤 종자는 크기가 연밥만 하고 길이는 4-5촌이며 모양이 네모반듯한데, 맛이 가장 없다. 한의학연구원. <https://medicclassics.kr> (2022. 11. 12 검색).

61 변영섭, 앞의 책(2016), p.264.

아시아인의 인식 체계에 영향을 끼치며 회화에도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조선 후기 이국의 과일 그림으로 그려진 여지, 불수감, 비파 등은 『십죽재서화보』의 직접적인 영향과 함께 『본초강목』의 간접적인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유추했다. 또한 오랜 세월 동아시아에서 제수의 상징으로 초려 즉 바나나와 여지가 거론되었음에도 바나나가 그림으로 거의 그려지지 않았던 이유로 『본초강목』에서 바나나를 초부에 두고, 열매를 그리지 않았을 것이라 추론했다.

이제까지 과일을 포함한 소과도가 사생과 길상의 목적으로 그려지면서, 남송의 선종화가의 깨달음의 대상으로, 명대 유가적 관념의 투영 대상으로 해석되어왔다. 본 연구는 여기에 더해 17세기 이후 주변을 관찰하고 담아내고자 한 과학적 태도도 더해졌다고 본다.

더불어 『본초강목』 삽화의 경험은 동아시아 회화에서 그림의 소재를 확대시키는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단독의 삽화들은 그림의 새로운 조합을 위한 도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동아시아에서 17세기 이후 화조화의 발달을 더욱 촉진시켰을 것으로 추측되므로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keyword

과도(果圖) painting of fruit, 사생(寫生) Sasaeng, 『본초강목(本草綱目)』 *Bencao Gangmu(Compendium of Materia Medica)*, 삽화(插畫) illustration, 『십죽재서화보(十竹齋書畫譜)』 *Shi zhu zhai shu hua pu(Ten Bamboo studio)*, 강세황(姜世晃) Kang Sehwang, 박규수(朴珪壽) Park Gyusu

투고일 2022년 9월 30일 | 심사일 2022년 11월 7일 | 게재확정일 2022년 11월 24일

사료

- 『經史證類備急本草 *Jing shi zheng lei bei ji ben cao*』
 『本草綱目 *Bencao Gangmu*』
 『十竹齋書畫譜 *Shi zhu zhai shu hua pu*』
 朴珪壽 Park, Gyusu, 『瓊齋集 *Hwan Jaejip*』
 申緯 Shin, Wi, 『警修堂全藁 *Gyeong Su dang jeon go*』

논저

- 고연희 Kho, Youenhee, 「韓·中 翎毛花草畫의 政治的 性格 Study on the political meaning of images with flowers and birds of the premodern China and Korea」,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h.D. diss., Ewha Woman's University, 2014.
- 고연희 Kho, Youenhee, 「화가 김인관(金仁寬)에 대한 기억 Memorial of the Painter In Kwan Kim」, 『문헌과 해석 *Literature and Interpretation*』89, 2022. pp.187-226.
- 변영섭 Byun, Young-sup, 『표암 강세황 회화 연구(개정판) *A Study of Korean Scholar-Painter Kang Se-hwang(revision)*』, 서울: 사회평론 Seoul: SaHoebyeongron, 2016.
- 신영주 Shin, Youngju, 『선화화보: 복숭 휘종의 회화 인물사 *Xunanhe Huapu: Painting History of Figures of the Northern Sung Huizong*』, 서울: 문자향 Seoul: MunJahyang, 2018.
- 오재근 Oh, Chaekun, 김용진 Kim, Yongjin, 「조선 후기 『본초강목』의 전래와 그 활용 : 『본초정화』, 『본초부방편람』을 중심으로 The Introduction of Compendium of Materia Medica(本草綱目) and Praxis in the Late Joseon Dynasty」, 『醫史學 *Korean Journal of Medical History*』20:1, 2011, pp.29-51.
- 오재근 Oh, Chaekun, 「『본초강목』이 조선 후기 본초학 발전에 미친 영향 : 미키 사카에의 『임원경제지』 본초학 성과 서술 비판 Influence of Compendium of Materia Medica on the Materia Medica in the late period of the Chosun Dynasty」, 『醫史學 *Korean Journal of Medical History*』21:2, 2012, pp.193-225.
- 유순영 Yoo, Soonyoung, 「명 말기 화훼, 사군자, 蔬果 화보의 시각 이미지 연구 A Study of Visual Images of Flowers, Sagunja, and Fruits & Vegetables Prints of the last Ming Period」, 『미술사연구 *Journal of Art History*』39, 2020, pp.263-293.
- 유순영 Yoo, Soonyoung, 「조선후기 花卉·蔬果圖: 심사정과 강세황을 중심으로 Paintings of Flower, Vegetable, and Fruit from the Late Joseon Period: Focusing on Sim Sajeong and Gang Sehwan」, 『美術史學研究 *Korean Journal of Art History*』300, 2018, pp.45-73.
- 이혁진 Lee, HyeokJin, 「明末清初期 彩色 四君子·花鳥 畫譜 研究: 十竹齋書畫譜, 十竹齋箋譜, 芥子園畫傳을 중심으로 A study on printing manual of Flowers in the Late Ming and Early Qing Period: focusing on Shi zhu zhai shu hua pu, Shi zhu zhai jian pu and Jie zi

yuan hua zhaun」,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M.A. thesis Hongik University, 2018.

장원언 Zhang, Yanyuan, 조송식 역 Jo, Song Sig trans., 『역대명화기 *Li dai ming hua ji*』, 서울: 시공사 Seoul: Sigongsa, 2008.

홍선표 Hong, Sunpyo, 『韓國의 花鳥畫 Flower-and-Bird Paintings of Korea』, 『韓國의 美 Beautiful Art of Korea』18, 서울: 중앙일보 Seoul: Korea Joongang Daily Press, 1985.

R. Sterckx, “The Limits of Illustration: Animalia and Pharmacoepia from Guo Pu to Bencao Gangmu,” *Asian Medicine*, 4, 2008, pp.357-394.

웹사이트

한국고전번역원 <https://db.itkc.or.kr/>

한의학연구원 <https://mediclassics.kr>

The Influence of *Bencao Gangmu* (*Compendium of Materia Medica*) on the Paintings of Fruits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Chung, Heechung

This study introduced and examined the development of herbal medicine in the context of the emergence of foreign fruits as subjects of paintings in the late Joseon Dynasty. In East Asia, oriental or Chinese medicine was developed while forming a common body of medical knowledge. The circulation of the 17th-century oriental medicine books, *Bencao Gangmu* and *Dongui Bogam* throughout East Asia coincided with the spread of the related illustrations. The purpose of the illustrations in *Bencao Gangmu* was the visualization of knowledge, which differed from conventional paintings. It is possible that it as continued to influence the knowledge system and discourse in East Asia.

The paintings of exotic fruits in the late Joseon Dynasty depicted fruits such as lychee, fingered citron, and loquat; it is believed that there the direct or indirect influence of *Bencao Gangmu* along with the direct influence of *shih zhu zhai shu hua pu* in these paintings. In addition, it is suggested that bananas were not depicted in these paintings despite being symbols of food for ancestral rites in East Asia along with lychee because bananas were rarely painted in the *Bencao Gangmu*.

In addition, the illustrations of *Bencao Gangmu* seem to have influenced the increase of material of the paintings. Further, the single illustrations may have served as a basis for new combinations of paintings, facilitating the development of paintings of flowers and birds in East Asia after the 17th century.

Thus far, paintings of fruits had been drawn for the purposes of sketching and holiness; they have been interpreted as objects of enlightenment by the Zen painters of the Southern Song Dynasty and as projections of Confucian concepts by painters of the Ming Dynasty. In this study, it is argued that a scientific attitude of observation and capturing of the surroundings has been incorporated in these paintings since the 17th century.